

# 분리 개별화와 가족 응집력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Family Cohesion

명지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韓 惠 峻

*Dept. of Home Economics*

*Myung Ji University*

*Hye Jun, Han*

명지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 李 喜 子

*Dept. of Home Economics*

*Myung Ji University*

*Prof. : Hee Ja, Lee*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것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인지 가족의 친밀감과 지지인지 알아보고, 두 요인이 모두 영향을 준다면 각각 대학생활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서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태도적 독립이 낮을수록 학업문제의 적응은 높았다.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심리적 문제와 진로, 취업문제의 적응은 낮았다. 태도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높을수록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응은 낮게 나타났다. 기능적 독립이 발달한 학생은 교우와의 관계에서 높은 적응을 나타냈다. 정서적 독립이 높은 학생은 전반적인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응집력은 대학생활에서 진로, 취업문제와 교우관계에 있어서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에게 가족응집력은 심리적 문제의 적응에 부적인 영향이 나타내며, 여학생에게는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와 진로, 취업문제의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독립자존하는 성인기로 이행되어가는 과도기이며 기존의 사회구조 어디에도 소속되기 어려운

주변경계인의 상태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전 단계에서 이룩한 동일시의 경험을 통합하고 새로운 차원의 자아를 형성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행동규준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 이 시기의 특성으로는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의 형성과 더불어 심리적 분리(psychological separation)의 시작을 들 수 있다.

Erikson(1963)은 청소년들은 자아에 대해 의문을 갖고 검토하며 이상과 목적을 추구하고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야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청년기는 독립된 인간이기를 원하는 심리적 독립을 그 특성으로 갖는다. 사실, 심리적 독립은 아동기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성장되어 가는 독립성은 청년기에 이르러 성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자기세계를 그리게 된다(이상로, 1981).

또한, 청소년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그들의 사회생활에서의 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ffman, 1984; Moore, 1987; Teyber,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분리개별화가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진 대학생들은 그들의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와는 의미가 상반되는 가족의 응집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인지, 가족의 응집력 즉 가족간의 친밀감이나 애정적인 면인지, 또는 두 부분 모두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규명해서 서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는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 (2) 대학생들의 가족응집력은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분리개별화 과정

Mahler, Pine과 Bergman(1975)에 의하면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유아의 능력과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지적으로 스스로를 보려는 유아의 능력의 상호의존적인 발달과제는 유아와 어머니간의 강한 정서적 관계속에서 생의 초기 3년

동안 수행되어진다. 출생 후 약 1개월동안 유아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폐기에 머물다가 공생기(symbiotic phase)로 들어가는데 공생기는 출생 후 4개월에서 18개월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동안의 유아는 유일한 애정대상인 어머니를 확대된 자신으로 본다.

공생기는 분리-개별화기(separation-individuation phase)에 접어들면서 끝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 유아는 어머니와 자신이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감별하게 되고 자신을 어머니로부터 분리시킨다(임종렬, 1991).

Blos(1979)는 이러한 일차적 개별화에 대응한 이차적 개별화를 제안했다. 이차적 개별화는 청년기 동안에 발생하는 두번째 분리개별화 과정으로 성격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첫번째와 두번째 분리개별화의 성공적인 수행은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 2. 가족응집력

Minuchin(1974)은 가족을 '상호거래를 통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가족내의 정서적 상호관계를 가족의 주요기능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Bowen(1978)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Minuchin과 Bowen은 가족내의 정서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나친 상호관계가 아닌 균형적인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Olson, Russel 그리고 Sprenkle(1983)은 기존의 이러한 입장을 종합하여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족의 응집'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족의 응집이란 가족원간의 친밀감 또는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으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과정 및 그 결과를 결정짓는 가족의 1차적 기능(Galvin & Brommel, 1986)이라고 할 수 있다.

### 3. 분리개별화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 적응

#### 1) 분리개별화와 대학생활 적응

청년기는 자아의식의 발달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려는 심리적 독립현상이 나타나며 동시에 반항적 태도가 나타나고, 이 불안감이 적절하게 해

소되지 않으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된다(백운학, 1976).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과정은 이론적으로 임상적으로 청소년기의 개인적 적응과 관계되는 결정적 문제로서 나타난다(Blos, 1979; Bloom, 1980).

분리개별화와 개인적 적응 중 대학생활 적응에 관련된 연구에서, Hoffman(1984)은 PSI로 측정된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은 개인적 적응과 대학에서의 학문적인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갈등적 독립은 대학생들에 의해 조사되어진 감정적인 문제와 우울과 서로 부적응으로 관련되었음을 나타내었고(Hoffman & Weiss, 1987; Lopez et al, 1986), 학문적, 감정적, 사회적인 적응과는 정적으로 서로 관련되었음을 나타내었다(Hoffman, 1984; Lasley et al, 1989; Lopez et al, 1988). 따라서 부모와 분리개별화를 하는것을 잘 받아들인 대학생들은 그들의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가족의 응집유형과 대학생활적응

Olson등이 제시한 가족의 응집은 이들 정도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몰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응집수준이 매우 높은 가족은 '매몰된 가족'으로 가족성원간에 지나치게 관여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지닐 수 없으며, 응집수준이 매우 낮은 가족은 '과잉 분리된 가족'으로 개인은 다른 가족원에게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열중한다. 응집이 적당히 높은 '연결된 가족'과 응집이 적당히 낮은 '분리된 가족'은 각 개인이 다른 가족원들과 적절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관련을 가지는 균형을 이루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다. 따라서, 가족응집력이 적절한 가족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가족응집 및 분리개별화와 대학생활적응

최근에 많은 연구가들은 사회심리적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발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Campbell, Adams, & Dobson, 1984; Grotevant, 1983; Hill & Holm-

beck, 1986). 애착이 낮으며 자율성도 낮은 대학생의 자아발달 수준이 가장 낮았고 애착과 자율성 발달 수준이 모두 높은 대학생이 자아정체감의 발달수준도 가장 높았다(Campbell et al, 1984; Marcia, 1980). 같은 맥락에서 이는 가족의 응집력이 좋아서 가족과의 친밀감과 애착이 높고,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도 잘 이루어진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능력도 높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분리와 정서적 유대와의 관계를 연구한 Moore(1987)에 의하면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분리를 정서적인 단절의 의미로 생각했을 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정도는 높았지만 심리적 복지감은 낮았고, 부모에 대해 심리적 분리도 높으면서 동시에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도 높은 집단은 대학생활의 적응도도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성이 있고 안정적인 때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고 적응도 높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과 분리개별화 두 변인이 각각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와 대학생활 중 어떠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대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6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남녀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부모로부터의 독립, 대학생활적응, 가족의 응집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분리개별화 척도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 J.A.이 1984년도에 제작한 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한 한미선(1987)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총 138문항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고 현실정에 맞는 82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추출 방법은 지도교수와 아동학 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3명에게 문항의 논리적 타당성을 논의하여 문항을 채택하였다.

문항의 반은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알아보는 내용이고,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PSI는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 FI),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 EI),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 CI),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 AI)과 같은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개별화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각각 4가지 하위변인들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75에서 .82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가족응집 척도

가족의 응집척도는 Olson, Portner, 그리고 Bell (1982)이 제작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척도 (FACE-II)를 번안한 민하영(1991)의 질문지 중 가족의 응집을 알아보는 문항만 선택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두 16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응집력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2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대학생활적응 척도

한덕웅, 전경구, 이창호(1991)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 중에서 본 연구에서 필요한 영역만을 채택하여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변인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한 결과 .63에서 .73으로 본 설문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연구절차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적절한

측정을 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남녀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994년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남녀대학생 총 55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자료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여, 총 455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어졌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분리개별화가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족응집력이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으로 각각 나누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표 1, 2에서 알아본 결과, 다른점은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높을수록( $\beta = .141, p < .05$ ) 교우관계의 적응은 높게 나타났고, 갈등적 독립이 낮을수록 진로와 취업문제에 대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대학생들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표 3에서 보면,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beta = .131, p < .05$ ) 학업문제의 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이 낮을수록( $\beta = -.225, p < .001$ ) 기능적 독립이 낮을수록( $\beta = -.179, p < .05$ ) 심리적 문제의 적응은 높아졌다. 남자대학생들은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이 낮을수록( $\beta = -.171, p < .05$ ) 교수와의 관계에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은 심리적 문제에 대해 8%의 설명력을 갖는다.

표 4에서 남자대학생들에게 어머니로부터의 독

표 1. 대학생들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beta$	F	R <sup>2</sup>
학업문제	갈등적 독립	.102	.182***	7.23***	.060
	태도적 독립	-.077	-.134*		
심리적 문제	갈등적 독립	-.168	-.237***	8.24***	.068

\*p<.05    \*\*\*p<.001

표 2. 대학생들의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beta$	F	R <sup>2</sup>
학업문제	태도적 독립	-.101	-.196***	5.55***	.047
심리적 문제	갈등적 독립	-.114	-.195***	6.63***	.056
교우관계	기능적 독립	.061	.141*	1.46	.013
진로와 취업문제	갈등적 독립	-.052	-.118*	3.87**	.033

\*p<.05    \*\*p<.01    \*\*\*p<.001

표 3. 남자대학생들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beta$	F	R <sup>2</sup>
학업문제	갈등적 독립	.074	.131*	2.14	.034
심리적 문제	갈등적 독립	-.154	-.225***	5.25***	.078
	기능적 독립	-.158	-.179*		
교수와의 관계	태도적 독립	-.088	-.171*	1.64	.026

\*p<.05    \*\*\*p<.001

표 4. 남자대학생들의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beta$	F	R <sup>2</sup>
학업문제	태도적 독립	-.109	-.207**	2.41*	.038
심리적 문제	갈등적 독립	-.090	-.157*	3.31*	.051
교우관계	기능적 독립	.109	.237**	1.98	.031

\*p<.05    \*\*p<.01

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태도적 독립이 낮을수록( $\beta = -.207, p < .01$ ) 학업문제 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적 독립은 학업 적응에 대해 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남자대학생들은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높을수록( $\beta = .237, p < .01$ ) 교우관계의 적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은 심리적 문제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갈등적 독립이 낮을수록( $\beta = -.157, p < .05$ ) 심리적 문제의 적응은 높아진다.

여자대학생들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표 5에서 보면, 여자대학생들의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에서는 특별히 태도적 독립이

낮을수록( $\beta = -.216, p < .01$ ) 진로와 취업문제의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표 6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자대학생들의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에서는 학업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태도적 독립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이 낮을수록 심리적 문제의 적응은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가족응집력은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표 7의 결과에서 보면,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beta = .174, p < .001, \beta = .127, p < .01$ ) 진로, 취업문제와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응집력은 진로와 취업문제에 대해 3%의 설명력을 가지며,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2%의 설명력을 갖는다.

표 5. 여자대학생들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beta$	F	R <sup>2</sup>
학업문제	갈등적 독립	.130	.236**	5.83***	.105
전반적 적응	정서적 독립	-.071	-.240*	3.97**	.074
심리적 문제	갈등적 독립	-.197	-.267***	3.58**	.067
진로와 취업문제	태도적 독립	-.118	-.216**	2.51*	.048

\*p<.05 \*\*p<.01 \*\*\*p<.001

표 6. 여자대학생들의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beta$	F	R <sup>2</sup>
학업문제	태도적 독립	-.089	-.179*	3.63**	.068
심리적 문제	갈등적 독립	-.131	-.212**	2.45*	.047

\*p<.05 \*\*p<.01

표 7. 대학생들의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beta$	F	R <sup>2</sup>
교우관계	가족응집력	.060	.127	7.44**	.016
진로와 취업문제	가족응집력	.110	.174	14.10***	.030

\*\*p<.01 \*\*\*p<.001

표 8. 남자대학생들의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beta$	F	R <sup>2</sup>
심리적 문제	가족응집력	-.110	-.136	4.74*	.019

\*p<.05

표 9. 여자대학생들의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beta$	F	R <sup>2</sup>
교우관계	가족응집력	.108	.217	9.97**	.047
진로와 취업문제	가족응집력	.152	.240	12.28***	.058

\*\*p<.01 \*\*\*p<.001

표 8에서 제시한 것처럼 남자대학생들은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beta = -.136, p < .05$ ) 심리적 문제의 적응은 높았다. 남자대학생들에게는 가족응집력이 심리적 문제에 대해 2%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표 9에서 여자대학생들은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beta = .217, p < .01, \beta = .240, p < .001$ ) 교우관계와 진로, 취업문제의 적응도 높게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에게 가족응집력은 교우관계와 진로, 취업문제에 대해 각각 5%와 6%의 설명력을 갖는다.

### V. 논의 및 제언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고, 둘째,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 중, 특히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어머니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이 낮을수록 학업문제에 대한 적응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로부터의 강요나 기대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자유로운 학생일수록 학업을 잘 수행해 나가게 되고, 태도적 독립이 높은

학생은 어머니가 바라는 학업태도와 학업방법을 다르게 되므로 학업문제의 적응이 높게 나타난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낮을수록 심리적 문제의 적응은 높았다. 이는 갈등적 독립이 너무 높아서 부모에게서 긍정적인 느낌만 받고 지내던 학생은 새로운 대학생활에 접했을 때, 여러가지 심리적 문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짐을 시사해주고 있다.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높은 학생은 교우관계의 적응을 잘하였다. 갈등적 독립이 낮은 학생은 진로와 취업문제의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해 한국대학생들은 장래의 문제같은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수행해 나갈 때, 부모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책임감과 약간의 정신적인 부담이 진로, 취업문제의 적응을 용이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에 적응을 더 많이 나타내 주었다.

전체적으로 남녀 대학생 모두 갈등적 독립이 발달한 학생이 학업적응을 잘하였고, 심리적 문제의 적응이 어려웠다. 이는 Hoffman(1984)과 Lasley(1989), 그리고 Lopez(1988)의 연구에 의해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활에서 교육적 요구들을 잘 관리하는 학문적 적응과 대학교내에서의 인간상호적인 경험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 하는 사회적 적응, 그리고 학생들이 일반적인 정신적 근심이나 근심의 신체적 결과를 경험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감정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Hoffman(1984)의 연구에서 PSI로 측정된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이 개인적인 적응과 학문적인 적응과 관련된다고 밝힌 결과와 일치한다. 미국 대학생들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독립이 잘되면 적응을 잘하는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의 승인과 친밀감이 있어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보다 학교생활의 적응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렸을 때부터의 양육방법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대학생들의 가족응집력은 그들의 대학생활에

서 진로, 취업문제와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진로, 취업같은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데 가족의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족원간에 친밀감이 강한 학생은 친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적응하는 것이 용이하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심리적 문제에 적응을 잘하였다. 남학생들은 친밀감보다는 독립에 적응을 잘하는 성향때문에, 가족의 지지나 친밀감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영향을 준다.

여학생들은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진로, 취업문제와 교우관계의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족응집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남학생들에게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여학생들에게는 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은 각각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는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에서 학업적인 면에 적응을 도왔다면, 가족응집력은 개인의 대인관계와 진로문제의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가족으로부터의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분리개별화가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서 가족원들로부터 계속되는 지지도 동시에 수반될 때, 대학생활의 적응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가족응집력이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다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가 경로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과 분리개별화의 변수들이 각각 대학생활 중 어느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었고, 두 변인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서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변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두 변인 중 어느 변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더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도 후속연

구에서 다루어지기 바란다.

참고문헌

- 1)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백운학(1976). 청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3) 이상로(1981). 청년기의 특성과 학생지도의 문제. 경북대 보직교수 세미나자료.
- 4) 이희자(1993). 어머니의 경계선 성격에 의한 자녀의 경계선 성격과 학업성취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임종렬(1991). 치료심리학. 서울 : 한국가족치료연구소.
- 6) 임종렬(1991). 대상관계이론과 가족치료. 인간성 개발과 교육효과를 위한 가족 치료. 제1회 가족치료학술세미나. 한국가족치료연구소.
- 7) 한덕운·전경구·이창호(1991). 한국대학의 생활 환경 변화와 대학생활 적용.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8) 한미선(1987). 한국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Bloom, M.V.(1980). *Adolescent Parental Separation*. New York : Gardner Press.
- 10) Blos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11)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 Y : Aronson.
- 12) Campbell, E., G.R. Adams, and W.R. Dobson. (1984). Family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09-525.
- 13) Eri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Y. : Norton.
- 14) Galvin, K.M. & Brommel, B.J.(1986).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 2nd ed.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 15) Grotevant, H.D.(1983). The Contribution of the Family to the Facilitation of Identity Form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05-237.
- 16) Hill, J.P. & G.N. Holmbeck.(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Annals of Child Development* 3, 145-189.
- 17) Hoffman, J.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 170-178.
- 18) Hoffman, J.A. &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19) Mahler, M., Pine, F. & Bergman, A.(1976).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 Basic Books. 41-45.
- 20) Marcia, J.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ed. J.Adelson. New York : Wiley, 159-187.
- 21) Minuchin, S.(1974). *Family and family theory*. Boston : Harvard Univ. Press.
- 22) Moore, D.(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298-307.
- 23) Olson, D. H, Portner, J & Bell, R.(1982). FACES-II in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8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 Univ. of Minnesota.
- 24) Olson, D. H., Sprenkle, D. & Russell, C.(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25) Teyber, E.(1983). Effects of Parental Coalition on Adolescent Emancipation from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9(3), 305-310.



##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

### Housewives' Locus of Control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

안동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 玄 恩 旻

Dept. of Home Economics

Andong University

Assistant Prof. : Eun Min, Hyun

본 연구는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가족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피와 통제의 갈등관리방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정관리방법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통제와 조정의 갈등관리방법은 내외통제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회피의 갈등관리방법은 외적통제성향의 주부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I. 서 론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현대의 부부관계는 애정을 기초로 하여 상호인격의 결합과 정서적 유대관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에 애정적,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가족의 결속력을 해치고 가족기능을 악화시켜 이혼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쳐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가정의 기능은 원만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부부간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갈등존재 자체가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부관계를 발전시키는 갈등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만족스런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부간의 갈등관리 방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내적 성격요인은 개인의 일생을 통한 행동의 양상 및 지속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정도와 갈등의 영역,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갈등에 따른 대응행동에 초점을 두어왔을뿐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부부갈등 발생시 갈등관리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갈등관리 방법은 개인이나 부부에 따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Jorgensen, 1986)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인의 내적 성격변인인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 방법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 II. 선행연구

### 1. 갈등의 개념

Deutsch(1969)는 개인내부에서 또는 두사람 이상의 대인관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관심사와 욕구나 가치가 다를 때, 자원이 부족할 때, 정보나 신념이 다를 때 그리고 개인간에 경쟁적인 요소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Coleman(1984)은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를 부부갈등이라고 정의하였고 Sprey(1971)는 가족간에 경쟁적인 요소가 갈등의 기초가 된다고 했으며 가족내의 최소한 자원으로 구성원들간의 경쟁적인 수단과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Hocker & Wilmot(1985)는 부족한 보상과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인식하는 두 상호의존적인 상대방사이에서 표출되는 투쟁을 갈등이라고 정의하였다.

Felstiner, Abel과 Sarat(1981)이 밝힌 갈등의 네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은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이고 관찰가능한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감정은 불안정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갈등도 불안정하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은 예측하기 힘들고 예기치 않게 변화할 수 있다. 셋째, 갈등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반향성이 있다. 넷째, 갈등은 주관적이고 불안정한 감정과 인식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복잡하다.

가족간의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갈등론자들은 가족을 갈등을 내포하는 체제라고 보고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당연하고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가족원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

는가가 중요하고 갈등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기 보다는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변화를 유도하여 좀더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끌수 있다고 하였다(조병은, 1994).

Bahr(1989)도 갈등의 네가지 긍정적 측면을 밝혔다; 첫째, 갈등은 가족간에 상호작용과 감정교환을 촉진시킨다; 둘째, 갈등은 정보나 의견등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간에 의견교환을 활발하게 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갈등은 가족의 위치나 규칙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넷째, 갈등은 가족 개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되면 가족의 결속력을 해치고 가족기능을 약화시킨다. 가족간에 긴장과 적대감을 일으키고 효과적인 대화와 문제해결능력을 방해한다. 적대감은 도덕감을 저하시키고 거부의 감정으로 남아 가족으로부터 위축되거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Bahr, 1989).

Strauss(1979)는 갈등이 억압되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적의가 쌓여 집단의 단합이 무너진다고 하였다. 갈등을 현실에 대해 역기능적이고 분열적이라고 본 Small(1905)도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 2. 갈등관리방법

갈등관리방법이란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활동을 말하며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갈등양식은 개인, 가족, 상대방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기 다른 갈등관리방법이 존재한다(김양희, 1993).

이영숙(1990)은 갈등해결방안이란 갈등이 발생된 이후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성적인 토론에서 부터 적대감 있는 폭력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Rice(1979)는 갈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제를 피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는 회피와 완전한 이해와 갈등해결에 도달하는 건설적인 논쟁과 문제자체보다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파괴적인 논쟁, 위협과 복종, 합의와 계약, 그리고 폭력으로 분류했다.

Strauss(1979)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정보나 다른 중재자를 찾는 이성적 방법과 상대에게 협박하는 언어적 공격 그리고 육체적 힘이나 완력을 사용하는 폭력의 세가지 유형을 밝혔다.

Chafetz(1974)는 부부갈등의 해결방법으로 권위, 통제, 영향력, 조종의 네가지 방법을 들었다.

Broderick(1977)은 갈등관리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권력대결과 이미 존재하는 자원분배에 대한 규칙이나 권위소재, 그리고 협상의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반적 원칙이나 방침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3. 내외통제성

내외통제성은 인지적 성격특성으로서 Rotter(1966)에 의해 체계적으로 소개되었다. 내외통제성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느냐 또는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운명이나, 우연, 그리고 개인적 통제를 넘어선 외부적인 힘에 돌리느냐에 따라 내적통제와 외적통제로 나뉘어진다. 인간은 누구나 이 두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대개는 어느 한쪽이 우세하여 나름대로 일관된 내적 혹은 외적 통제성을 지니게 된다.

Rotter(1966)는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모든행동은 개인의 주관적 목표나 강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강화를 얻으리라는 기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하였다.

내외통제성이란 이러한 강화에 의한 기대변인중의 하나로서 개인은 과거 여러 상황에서의 일련의 경험을 통해 행동과 강화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하여 내적 혹은 외적 통제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내외통제성은 자아개념, 책임성, 적응성, 목표성취등 개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Rotter(1966)에 의하면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보다 주위환경을 잘 조정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졌고 높은 성취욕구를 지녔으며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Sandler와 Lakey(1982)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성을 가진 개인이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Lefcourt(1976, 1982)와 Phares(1976)는

내적통제성과 개인의 정보수집과 활용능력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발견하였다. 내적통제성향을 가진 개인은 보다 가치있는 산출을 위하여 정보를 구하고 상황을 조정할 줄 안다고 하였다.

### 4.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

많은 실험적 연구들에서 Rotter(1966)는 개인은 나름대로 일관된 내적 또는 외적통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내외통제성은 자율성, 성취욕구, 의존성과 같은 다른 성격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William과 Vantress(1969)는 내외통제성과 적대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외적통제성향의 개인이 내적통제성향의 개인보다 더 적대적이며 공격적이라고 하였고 Butterfield(1964)는 내적통제자가 좌절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처하며 자기 비난을 적게 한다고 하였다.

Pittman과 Pittman(1979)는 내외통제성과 무기력감의 연구에서 외적통제자가 내적통제자에 대해 협오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무기력하다고 하였다.

김영례(1981)는 내외준거성과 대인관계 행동간의 상관연구에서 내적통제성은 대인행동의 지배성, 책임성, 공격성, 경쟁성과 상관이 있으며 외적통제성은 대인행동의 협동성, 유순성, 자기비하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내적통제성향의 개인은 외적통제성향의 개인보다 환경을 조절하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Phares, 1976; Strickland, 1977)를 결혼생활과 연관시켜볼때 내적통제성향의 개인이 배우자에 대해 지배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Olson과 Cromwell(1975)은 결혼생활에서 지배적행동은 배우자의 행동을 변화시킬려는 의도라고 정의하였고 Doherty와 Ryder(1979)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는 의도라고 규정하였다.

내외통제성과 지배적인 행동에 대해 연구한 Doherty와 Ryder(1979)에 의하면 갈등상황에서 내적통제성향의 남편이 외적통제성향의 남편보다 훨씬

지배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eplegle, O'Bannow, McCullough & Cashion(1980)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 보다 자신을 더 지배적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Bugental, Henker & Whalen(1976)도 지배성이 개인의 내외통제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내외통제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갈등관리방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내외통제성에 따라 갈등관리방법은 차이가 있는가?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안동에 거주하는 주부 2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안동의 세 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그들 어머니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포한 질문지 400부 중 245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자료를 제외한 20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 3. 측정도구

##### 1) 내외통제성

내외통제성 측정도구는 Rotter(1966)의 23쌍의 항목을 6항목의 Likert Scale로 수정한 Bagaighis와 Schumm(1983)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적으로 부정한다(1)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5)까지 5단계 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분 포	N (%)
연 령	34세 이하	1 (1)
	35-39세	82 (41)
	40-44세	92 (46)
	45-49세	20 (11)
	50세 이상	3 (2)
	무응답	2 (1)
	M=40.6	S.D=3.39
결혼지속 년 수	10년 이하	2 (1)
	11-15년	73 (37)
	16-20년	93 (47)
	21-25년	19 (9)
	26년 이상	10 (4)
	무응답	3 (2)
M=17.04	S.D=3.88	
교육수준	국민학교 이하	25 (12)
	중 졸	45 (22)
	고 졸	100 (51)
	전문대, 대졸	27 (13)
	대학원 이상	1 (1)
무응답	2 (1)	
가족소득	30만원 이하	7 (4)
	30-50만원	9 (5)
	50-70만원	26 (12)
	70-100만원	40 (20)
	100-150만원	78 (39)
	150만원 이상	38 (19)
무응답	2 (1)	
직 업	주 부	129 (65)
	전문직	4 (2)
	행정, 사무직	10 (5)
	판매직	31 (16)
	생산기술직	16 (8)
	서비스직	6 (3)
무응답	4 (2)	
종 교	무 교	54 (27)
	불 교	98 (49)
	기독교	29 (15)
	천주교	15 (7)
	기 타	2 (1)
무응답	2 (1)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을 나타낸다. 내외 통제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54$ 로 나타났다.

2) 갈등관리방법

갈등관리방법의 측정도구는 Putnam & Wilson (1982)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부부간의 대인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조사대상자는 전혀없다(1)부터 항상있다(5)까지 5단계 Likert Scale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이었다.

이 연구에서 갈등관리방법의 척도는 전체항목을 요인분석하여 회피, 통제, 조정의 세가지 하위척도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였고 요인의 행을 단순화 시키는 Varimax 방법으로 직각회전하였다. 분석결과 Kaiser의 기준에 따라 eigen value가 1.0 이상인 3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1에 포함된 4문항은 갈등을 피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회피'로 명명했다.

요인 1의 eigen value는 4.157이며 설명변량은 29.7%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형태로서 '통제'라 명명했고 eigen value가 2.62이며 16.4%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eigen value가 1.72이며 설명변량은 10.8%로 갈등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조정'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회피가 Cronbach's  $\alpha=.65$ 로 나타났고 통제는 Cronbach's  $\alpha=.80$ , 조정은 Cronbach's  $\alpha=.63$ 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족소득, 직업, 교육수준, 그리고 종교에 대해 조사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백분율, Pearson의 상관분석, 요인분석, 일원변량분석,

표 2. 갈등관리방법의 요인구조

요인명	문항번호 및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회 피	1. 나는 남편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 갈등을 회피한다.	.71793
	14. 나는 남편과 싸우느니 차라리 입을 다문다.	.70571
	5. 나는 남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의견을 말하지 않는 편이다.	.70493
	8. 나는 남편과 논쟁의 불씨가 되는 주제는 피한다.	.54138
요인 2 통 제	13. 나는 의견차이가 있을 때 남편이 내입장을 이해할 때까지 논쟁을 지배한다.	.78486
	10. 나는 내의견이 관철되도록 열심히 오래 논쟁한다.	.77953
	11. 나는 남편과 불편한 관계동안에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우긴다.	.77377
	6. 나는 남편에게 내주장을 받아들여도록 할 때 목소리를 높인다.	.75338
	3. 나는 남편과 논쟁할 때 내의견을 강압적으로 주장한다.	.53900
요인 3 조 정	2. 나는 남편에게 문제해결책을 같이 찾자고 제안한다.	.71566
	9. 나는 남편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60795
	7. 나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남편의 의견이 반이라도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60750
	4. 나는 남편이 반만 내요구를 들어줘도 많이 양보할 것이다.	.60416
	16. 나는 남편과의 차이를 덜 심각하게 할려고 노력한다.	.47721
	12. 나는 다양한 견해를 종합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41369
	15. 나는 의견의 차이를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여 남편과의 갈등을 완화한다.	.37387

Duncan multiple range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내외통제성은 최저 11점에서 최고 25점까지의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점수가 18.9(S.D=2.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내적통제성이 강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내외통제성을 일원분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내외통제성

변 인	구 분	N	평 균	Duncan	F 값
연 령	39세 이하	84	18.92		.08
	40-49세	112	18.86		
	50세 이상	3	18.65		
결혼지속 년 수	10년 이하	2	19.00		.28
	11-15년	67	18.76		
	16-20년	76	19.00		
	21-25년	15	18.33		
	26년 이상	5	19.20		
가족소득	70만원 이하	42	18.07	a	5.92***
	100만원 이하	40	18.18	a	
	150만원 이하	78	19.15	b	
	150만원 이상	38	19.92	b	
직 업	주 부	129	18.77		.43
	서비스직	6	19.33		
	생산기술직	16	18.88		
	판매직	31	19.39		
	행정사무직	10	18.90		
	전문직	4	19.50		
교육수준	국졸이하	25	18.36	a	5.58***
	중 졸	45	18.56	a	
	고 졸	100	18.97	a	
	전문대, 대졸	27	19.37	b	
	대학원 이상	1	23.00	c	
종 교	무 교	54	19.15		.52
	불 교	98	18.78		
	기독교	29	18.69		
	천주교	15	19.33		

\*\*\*p<.001

산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소득과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면 70만원 이하 집단과 150만원 이하 집단간에 그리고 70만원 이하 집단과 150만원 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100만원 이하 집단과 150만원 이하 집단간에 그리고 100만원 이하 집단과 150만원 이상 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에는 대졸집단과 중졸집단, 국졸이하 집단간에 그리고 대학원이상 집단과 다른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졸집단과 대학원이상 집단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 그 자체가 하나의 성취로 볼 수 있고 자기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개인은 성취도가 높고 환경에 적응하는데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내외통제성은 보상적인 행위나 반응에 의해 강화되므로 가족소득이나 교육수준은 자원으로써 개인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내적통제성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연령과 결혼지속년수, 직업, 그리고 종교에 따른 내외통제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과 내적통제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해진다고 밝히고 있으나(Lefcourt, 1976; Phares, 1976)이 연구에서는 30대 주부의 점수가 가장 높고 50세 이상 주부의 점수가 가장 낮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과 내외통제성과의 관계에서도 전문직의 주부가 전업주부와 다른 직업에 비해 내적통제성이 강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주부인점을 감안해 전업주부집단과 취업주부집단으로 나누어 t-test한 결과도 직업에 따른 내외통제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21, p>.05$ ). 이것은 직업이 있는 주부도 대부분 하위직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 갈등관리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갈등관리방법은 최저 19점에서 최고 69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47.5점(S.D=7.4)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방법의 세 하위척도중 회피는 평균 11.3점으로 4점에서 20점의 점수분포를 보였다. 통제는 평균 14점, 점수분포 5점에서 25점 사이로 나타났으며 조정은 9점에서 35점의 점수분포로서 평균 22점으로 나타났다.

표 4는 회피, 통제, 조정의 세가지 갈등관리방

법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이다.

회피와 통제의 갈등관리방법에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의 갈등관리방법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30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50대 집단이 가장 낮아 연령이 젊을수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젊은 주부일수록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결정을 내리는 주체성이 강하여 갈등해결에 적극적이라고 여겨진다. Duncan multi-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관리방법

변 인	구 분	회 피			통 제			조 정		
		N	평 균	F 값	N	평 균	F 값	N	평 균	F 값
연 령	39세 이하	83	11.36	.83	82	13.72	1.43	82	22.61	4.08*
	40-49세	109	11.23		110	14.16		109	22.06	
	50세 이상	3	11.23		3	15.67		3	15.67	
결혼지속 년 수	10년 이하	2	10.50	1.46	2	10.50	.55	2	26.50	2.05
	11-15년	66	11.26		65	14.25		65	22.54	
	16-20년	74	11.70		75	13.87		74	22.05	
	21-25년	15	12.00		15	13.27		15	22.47	
	26년 이상	5	8.40		5	14.00		5	17.60	
가족소득	70만원 이하	41	11.49	1.13	41	13.34	1.03	41	21.17	.99
	100만원 이하	38	11.29		39	14.38		38	22.32	
	150만원 이하	77	11.49		76	13.80		76	22.55	
	150만원 이상	38	10.42		38	14.84		38	22.34	
직 업	주 부	126	11.13	1.59	126	13.92	.73	125	22.20	.41
	서비스직	6	11.50		6	14.00		6	22.17	
	생산기술직	15	12.60		15	14.27		15	22.53	
	판매직	31	10.13		31	14.23		31	22.94	
	행정사무직	10	11.90		10	16.10		10	21.00	
	전문직	4	12.25		4	12.00		4	21.25	
교육수준	국졸이하	24	11.67	1.13	24	14.42	.30	24	21.93	.24
	중 졸	45	10.73		45	13.98		45	21.71	
	고 졸	97	11.10		97	13.81		96	22.38	
	전문대졸, 대졸	27	12.22		27	14.59		27	22.46	
	대학원 이상	1	11.00		1	12.00		1	23.00	
종 교	무 교	53	11.70	1.16	53	13.74	1.36	53	22.62	.93
	불 교	97	10.82		97	14.03		97	21.81	
	기독교	27	11.70		28	13.50		27	22.96	
	천주교	15	11.07		14	16.07		14	21.28	

\*p<.05

ple range test에 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면 30대 집단과 50세 이상 집단간에, 40대 집단과 50세 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양희(1986)의 연구에서 20대, 30대에서 합의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것과 일치한다.

결혼지속년수, 가족소득, 직업, 교육수준, 종교의 차이에 따른 조정갈등 관리방법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갈등대응 행동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 갈등관리방법, 특히 회피와 통제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없는것은 다른 주부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갈등관리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적환경 및 상황적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3.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

내외통제성과 세가지 형태의 갈등관리방법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내적통제 집단과 외적통제집단으로 분류하여 회피, 통제, 조정의 갈등관리방법간에 Pearson 상관계수와 t-검증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외통제자의 분류는 전체집단을 내외통제성 점수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상위(25%), 중위(50%), 하위(25%)로 나누어 이중 상위 25%를 내적통제자, 하위 25%를 외적통제자로 구분하였고 두 극단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간 50%는 제외하였다.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간에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47, p < .001$ ). 내적통제성과 회피( $r = .10, p > .05$ ), 통제( $r = .13, p > .05$ ) 그리고 조정( $r = .02, p > .05$ )의 갈등관리방법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통제성과 회피의 갈등관리방법간

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 = .15, p < .05$ ). 즉 외적통제성이 강할수록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test의 결과(표 5)에서도 주부의 내외통제성에 따라 갈등관리방법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와 조정의 갈등관리방법에서는 내적통제성향이나 외적통제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 보다 통제와 조정의 갈등관리방법에서 점수는 더 높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피의 갈등관리방법은 외적통제성향의 주부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이 결과는 내적통제성과 지배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Doherty & Ryder, 1979; Replole et al., 1980; 김영례, 1981)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 관계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Rotter의 이론에 따르면 결혼생활에서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적이고 과업지향적인 반면 외적통제자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외적통제성향의 주부가 회피의 갈등관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론을 뒷받침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내외통제성과 회피, 통제, 조정의 갈등관리방법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외통제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가족소득( $F = 5.92, p < .001$ )과 교육수준( $F = 5.58, p < .001$ )으로 나타났다. 가

표 5. 내외통제성에 따른 갈등관리방법

갈등관리방법 내외통제성	회 피			통 제			조 정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내적통제(N=45)	10.44	3.12	2.50*	14.35	4.53	1.06	22.58	4.34	.96
외적통제(N=48)	11.79	3.36		13.44	3.70		21.77	3.78	

\* $p < .05$



족소득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내적 통제성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피와 통제외의 갈등관리방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정외의 갈등관리방법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30대, 40대, 50대 이상 집단순으로 점수가 높아 젊은 주부일수록 갈등해결을 위해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지속년수, 가족소득, 직업, 교육수준, 종교는 조정갈등관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내외통제성에 따라 갈등관리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외와 조정외의 갈등관리방법은 내외통제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회피외의 갈등관리방법은 외적통제성향의 주부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원(가족소득, 교육수준)이 많은 주부일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하며 갈등상황에서 외적통제성향의 주부는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격특성이 부부간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갈등관리방법의 유형을 밝힐 수 있다면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특성을 지닌 성격과 갈등의 심리적인 면을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측정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 부부의 갈등관리방법은 개인의 내적 성격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 배우자의 성격특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부부간에 자신이 인식하는 성격특성과 배우자가 인식하는 성격특성의 차이에 따른 갈등관리방법 유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양희(1993). 가족관계학. 서울 : 수화사.
- 2) 김영례(1981). 내외준거성과 대인관계 행동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49-66.
- 4) 조병은(1994). 가족의 위기와 해체.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 서울 : 하우.
- 5) Bahr, S.J.(1989). *Family interactio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6) Broderick, C.B.(1977). Power in the governance of families. In *Power in families*, (ed.) R.F.Cromwell & D.H. Olson, 117-128, CA : Halsted.
- 7) Bugaighis, M.A. & Schumn, W.R.(1983). Alternative measure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Psychological Reports* 52, 819-823.
- 8) Bugental, D.B., Henker, B. & Whaler, C.K.(1976). Attributional antecedents of verbal and vocal asser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405-411.
- 9) Butterfield, E.C.(1964). Locus of control, test anxiety, reaction to frustration and achievement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32, 298-311.
- 10) Doherty, W.J. & Ryder R.G.(1979). Locus of control, interpersonal trust and assertive behavior among newlyw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212-2220.
- 11) Deutsch, M.(1969). Conflicts : 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25, 7-41.
- 12) Felstiner, W.I., Abel, R.L. & Sarat, A.(1981). The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of disputes : Naming, blaming, claiming. *Law and Society Review* 15 : 631-910.
- 13) Hocker, J.C. & Wilmot, W.W.(1985). *Interpersonal conflict*. IA. : Wm C.Brown publishers.
- 14) Lefcourt, H.M.(1976, 1982). *Locus of control*. Hillside, NJ : Erlbaum.
- 15) Olson, D.H. & Cromwell, R.E.(1975). *Power in families*.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16) Phares, E.J.(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 Morriso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17) Pittman, N.L. & Pittman, T.S.(1979). Effects of amount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nternal external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7-47.
  - 18) Putman, L.L. & Wilson, C.E.(1982). Communication strategies in organizational conflicts. In, M. Burgoon(Ed.) *Communication Yearbook* 6.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19) Rice, F.P.(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 & Bacon.
  - 20) Rotter, J.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21) Sandler, I.N. & Lakey, B.(1982).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65-80.
  - 22) Sprey, J.(1971). On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23) Straus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24) Strikland, B.R.(1977). Internal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In, T. Blass(Ed.) *Personality variables in social behavior*. New York : Wiley.
  - 25) Williams, C.B. & Vantress, F.E.(1969). Relation between internal external control and aggression. *Journal of Psychology* 71, 59-61.